

# 2019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여자중학교



2019. 7

---

김\*한

---

이화봉사단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시행까지 봉사활동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다. 더 질적인 수업을 만들기 위해 팀원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며, 팀원들로부터 새로운 수업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고 학생들을 고려하는 법을 배웠다. 한 달 이상의 시간 동안 서로 이야기하고, 4박 5일간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정말 좋은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주고 격려해주던 팀원들 덕에 이화봉사단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 같다. 이화봉사단 활동은 교사라는 진로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해주었다.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따뜻하게 웃어주는 아이들을 보며 뿌듯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자체로 힐링의 시간이었던 거 같다. 아이들이 보여준 에너지 넘치는 모습과 순수한 마음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프로그램 준비와 아이들에게 보다 질적이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던 날들이었지만 아이들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다. 팀원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하며 혼자서는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얻고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며 친해질 수 있었다. 이화봉사단으로 파견되어 학교의 이름을 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아이들에게 선배로서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알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미숙하고 우왕좌왕하는 나이기에 힘들었지만 괜찮다며 서로 격려하는 팀원들과 우리를 믿고 따라주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나날들이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동기부여 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시간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또한 한 사람에게 동기를 심어주고 격려하는 일은 나 스스로에게도 동기를 만들어 주는 일이었다. 함께 활동했던 팀원들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이 경험이 나의 대학생활 중 가장 가치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임\*주

---

이화봉사단은 나의 1학년 첫 여름방학을 누구보다도 값지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이화 봉사단을 처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준비해야할 것도 많고 복잡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4박 5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좋은 팀원들을 만나 끈끈한 관계를 맺었고, 무엇보다 서산여중의 아이들과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행복했다. 첫째 날 생각보다 낮을 많이 가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5일간의 시간동안 이 아이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지만 아이들과 헤어진 지금도 서산여중 아이들이 그리울 만큼 정이 금방 들었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서툴었고 아이들의 눈에도 나의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다 보였을 텐데도 항상 괜찮다며 웃어주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다. 매일 활동이 끝나고 숙소에서 모여 팀원들과도 이야기 했던 것처럼 본래 목적은 봉사를 가기 위함이었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내가 배우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날 이화여대 탐방을 와서 꼭 이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고, 꼭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김\*린

---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은 정말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로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18-겨울에 다른 지역 아동센터로 이화봉사단 활동을 하러 가 본적이 있었는데, 그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그 때는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이 위주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예뻐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보다 놀아주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 서산여중에서는 아이들을 놀아주는 것과 동시에 정말 대학생 언니로서 아이들의 진로고민을 함께 해 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 다른 뿌듯함이 들었다. 사실, 이화봉사단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봉사를 하는 이유를 잘 몰랐고 그냥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서 얻는 뿌듯함 때문일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화봉사단을 통해 봉사는 내가 얻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활동임을 배웠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말에도 열심히 귀 기울여주고 지도에 잘 따라주는 아이들에게 오히려 힘을 얻고 사랑받고 오는 이 경험은 무엇보다도 값지다. 그리고 이번 봉사에서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마음맞는 팀원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다른 학과 친구들과, 특히 나이도 차이가 나는 친구들과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돼서 매우 기뻐다. 첫 날 아이들과 친해지기 힘들어서 고민할 때도 팀원이 함께여서 힘이 났고 아이들과 친해지고 난 다음에도 팀원들과 함께여서 더 즐거웠다. 기회가 된다면 정말 다음 방학에도 우리 팀원들과 함께 또 서산여중에 방문하고 싶다.

---

여\*기

---

힘들었지만 뿌듯하고 기억에 오래 남을 시간이었다. 봉사활동 전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상황과 멘티에 맞추어 하루하루 다시 수정과 준비를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가 학생일 때 선생님의 고충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 그리고 '이래서 선생님을 하는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멘티들이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고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멘토, 멘티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헤어질 때 아쉬웠다.

---

임\*정

---

아이들의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또한  
번 놀라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라는 존재가 아이들에게주는 영향은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앞으로 이들이 좋은 사람 좋은 만남을 했으면 좋겠다.